

조각난 풍경 (fragmented landscape)



<조각난 풍경> 블라인드, LED튜브, 컨트롤러, 타이머, 케이블, 220x240x70cm, 2022

<fragmented landscape> blind, LED tube, controller, timer, cable, 220x240x70cm, 2022

“조각난 풍경(fragmented landscape)”은 유리 외벽으로 인해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바라만 봐야만 하는 윈도우갤러리의 공간적 특성을 이용한 작업입니다.

유리 벽면에 설치된 블라인드는 멀리에선 전시장을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듯 보이지만 조절된 각도로 인해 관람자가 유리 벽면에 가까이 다가서면 그 안의 공간을 파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간 안에 설치된 두 가지 다른 색감의 LED튜브는 컨트롤러를 통해 불규칙적으로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불규칙적으로 깜박이는 빛은 멀리 있는 관람자가 블라인드 뒤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 가까이 다가온 관람자는 파편적으로 보이는 빈 공간 속에서 깜박이는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업 “조각난 풍경”은 유리를 통해 공간 안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쇼룸이 가진 공간적 특성에서 벗어나 오히려 블라인드와 의도적으로 깜박이게 만든 빛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파편화합니다.